

교육의 가치중립성 문제와 사회적 책무성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d
the issu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education

김성수

| 고신대총장, 기독교교육과교수, 철학박사 |

I. 서론	178
II. 교육의 가치중립성 문제	179
III. 교육과 사회변화	181
IV.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185
1. 분별을 위한 교육	185
2. 공의를 위한 교육	187
3. 평화(shalom)를 위한 교육	188
V. 맺는 말	192

김성수 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남아공화국 포 첵스트롬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철학박사), 고려신학대학원과 재미고려신학대학원에 서 수학한 후,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역, 저서로는 「기독교교육원론」(소망사), 「내일로 가는 교회교육」(영문), 「가르침은 예술이다」(IVP) 등이 있다.

요약문 :

이 글은 교육이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인지를 검토함과 동시에 교육의 사회적 책무 성을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글이다. 흔히들 교육을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활 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심기고 예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종교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이 사 회를 변화하고 변혁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과 현상의 배후에 깔려있는 종 교적 동인과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전통은 소위 '문화명령' 을 강조해 왔다. 문화명령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교육과 학문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교 육과 학문을 실천 지향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과 학문이 사 회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실천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 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과 학문은 정의와 평 화를 구현하기 위한 '풀어줌의 사명' 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어 :

가치중립성, 기독교교육, 사회적 책무성, 정의, 평화(shal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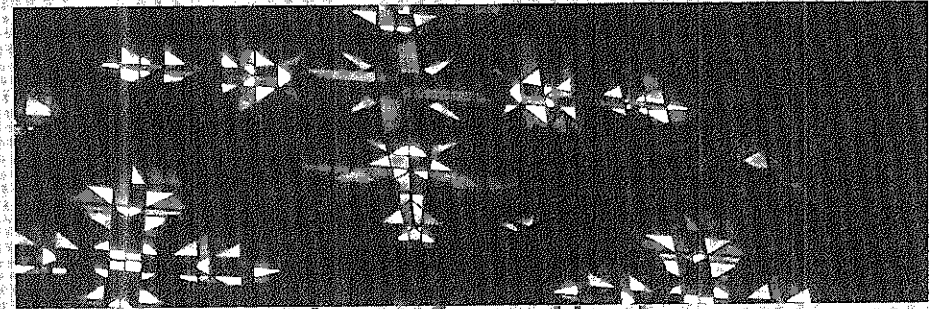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d the issu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education

It is said to be that educational activity is so-called a 'value-free' activity. However, education can never be neutral in the sense that it is a kind of worshipping activity to serve someth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discern what kind of religious motive and world view do function at the bottom of those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make them serve to change and transform the society we live in.

The so-called 'cultural mandate' has been emphasized in the Reformational tradition. The cultural mandate is surely import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ristian education and scholarship ideal. It does not, however, guarantee to make those Christian education and scholarship practical-orientated activities and phenomena. Christian education and scholarship can be more practical if they concern about the issue of social justice and peace. What we need is not only the cultural mandate but also the liberation mandate to work for justice and peace i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scholarship in the 21st century should promote the ideal of justice and peace.

Keywords:

religious neutrality, Christian education, social responsibility, justice, peace(shalom)



The myth of religious and the issue of education in

I. 서론*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과학기술이 제공해 주는 효용성과 편의성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과학과 과학기술의 부작용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빈부의 격차, 이혼율과 자살율의 급증,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 등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 위협의 증대, 에너지 자원 고갈, 경쟁적인 지역주의화와 세계화, 지구 온난화 등 국제적 관심사들이 일상생활에 변화무쌍하게 드리워져 있다.¹⁾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독교 지성인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에 기초한 실천적 지성으로 시대정신을 분별하고 사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가치중립성 문제와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가치중립성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Lordship) 을 드러내는 과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통해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하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0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초강연을 다시 정리한 글
1) 김성수, 김승욱, "200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초대의 글", 기독교학문연구소, 2007.

II. 교육의 가치중립성 문제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행위가 가치중립적인 행위라고 믿고 있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육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행위라는 '신화' 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²⁾ 교육은 단지 특정 종교나 가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사실을 전수하는 행위일 뿐이며, 사실에 대한 가치론적 해석이나 의미부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이 중립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교육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며 본질상 중립적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교육의 주창자인 호레이스 만(Horace Mann)도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주장하지 않았다.³⁾ 교육은 항상 교육의 과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공교육은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거절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에들린(Richard Edlin)에 의하면 교실에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념적 교화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

2) Richard J. Edlin,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그리스심, 2004, pp. 52-53)

3) Ibid., pp. 53-55.

4) Ibid., pp. 61-63.

이, 그리고 창조세계의 모든 국면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주장이 없이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은 부단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적절성이 없다는 가르침을 강화시키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 교육이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소위 사적이며 영적인 영역에만 적절성을 가지며, 학문과 교육과 같은 공적인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세속주의(secularism) 역시 종교적 관점이다.⁵⁾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관점에 민감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세속적 관점이 교육의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며 적절성이 없는 것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이다.⁶⁾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인간 삶의 소위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시키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면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신앙과 지성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제자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

5) 인간 삶의 소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세속화'(secularization)와 '사생활화'(privatization)의 문제로 잘 설명해 보여주고 있다(cf. Os Guinness, *The Gravedigger File*, 이종필 옮김, 「무덤과 기 작전」, 서울: 낮은 울타리, 1997, pp. 57-106).

6) 교육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범위를 소위 '영적인' 일에 제한시키며, 학교의 전체 영역을 복음과는 관계없는 영역으로 방치한다. 뿐만 아니라, '영성'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3, pp. 41-42).

III. 교육과 사회변화

교육이 가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교육을 사회변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를 시도해 온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고찰은 또한 기독교 지성이 추구해야 할 사회변화의 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다.

교육의 역사를 보면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추구한 많은 사상가들을 볼 수 있다. 미래의 이상국가(Republic)를 구상한 플라톤은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였다. 그는 성의 평등, 공동의 자녀 양육, 철인-왕(philosopher-king) 계급의 통치와 같이 당대 헬라 사회의 관습과는 혁신적으로 다른 출발을 제안하였다.⁷⁾ 스토이주의 철학자들은 세계 국가(a world state)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사상을 주창하였다. 로마 황제며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는 자신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세계시민이라고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재건주의 교육자들이 민족주의적 열정과 쇼비니즘(chauvinism)을 극소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정교화 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e)과 같은 기독교철학자들은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것을 주창하였다. 토마스 무어(Thomas More), 토마스 캄파넬라(Thomas Campanella), 요한 발레틴 안드레아(Johann Valentin Andreae), 그리고 사무엘 고트

7) Plato, *The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Samuel Gott)와 같은 사상가들 역시 다양한 유토피아적 저술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사회를 기독교적 사상을 따라 더 나은 세계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다.

콩트 드 생시몽(Comte de Saint-Simon), 찰스 포리에르(Charles Fourier), 그리고 프란소아 노엘 바베우프(Francois Noel Babeuf)와 같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의 저술 역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발달을 통한 사회 변혁을 주창하고 있다. 로버트 오웬(Robert Owen)과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와 같은 저술가들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과학과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칼 막스(Karl Marx)와 같은 사상가는 산업 제도의 비인간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해악을 개탄하면서 국제 공산주의에 기초하여 재건된 세계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비록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인간의 사상을 미래 세계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으로 고개를 돌리게 했으며, 헉슬리(Aldous Huxley)의 「용감한 신세계」(*Brave New World*)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와 같은 반유토피아적 사상을 낳기는 했지만, 러셀(Bertrand Russell)과 같은 낙관주의적 개혁자들도 있다. 러셀의 저서 「사회 재건 원리」(*Principles of Social Reconstruction*)는 핵으로 인한 인류대학살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오늘날 청년 행동주의자들과 같은 다양한 집단들은 반문화와 범세계적 변화를 위한 제안들, 그리고 인종차별과 빈곤, 전쟁이 없

는 세계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면서 논하고 있다. 심지어 스키너(B. F. Skinner)의 「왈덴 투」(*Walden Two*)에서와 같이 어떤 이들은 '조건 지움' (conditioning)이나 '행동주의 공학' (behavioral engineering)의 사용을 인간의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일상 생활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성취하는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⁸⁾ 그 이후에 나온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Beyond Freedom and Dignity*)는 심지어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스키너의 신념을 더 강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 보인다.⁹⁾

그런데, 플라톤으로부터 스키너에 이르기까지 주창된 제안들을 잘 검토해 보면 이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정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교육을 사회 변화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은 교육을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한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막스는 교육을 프로레타리아 계급들로 하여금 '사회적 의식' (social consciousness)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한 방법으로 보았다. 기독교 저술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과 사상을 주입시켜주는 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사용할 것을 주창하였다. 또 현대 기술주의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기술적 변화를 조장하는 한 방법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진보된 기술 사회 속에서의 삶을 위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보았다. 「왈덴 투」(*Walden Two*)에서 스키너는 고도의 효율성을 위해 훈련받고 교육받은 개인들, 기술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농업가들을 가진 공동체를 묘사하였

8) B. F. Skinner, *Walden Two*, New York: Macmillian, 1948.

9)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Alfred H. Knopf, 1971.

는데, 이것은 확실히 토레오의 왈든(Thoreau's Walden)이 보여주는 낭만적 전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는 「에밀(Emile)」에서 아동을 시골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교육적인 언명을 했던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도 양육의 완성된 결과는 존 록크(John Locke)가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에서 그랬던 바와 같이 나중에 보다 새롭고 개선된 길을 따라 사회를 인도해 가는 사람으로 보았다. 록크가 말하는 '신사'(gentleman)는 자신의 양육과 교육의 덕목이 그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며, 반면 루소가 말하는 '고상한 야만인'(Noble Savage)은 자신의 순수성과 자연성(naturalness) 때문에 인도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사회 개혁의 도구로 보았다. 예를 들면, 호레이스 만(Horace Mann), 헨리 버나드(Henry Barnard), 윌리엄 토리 해리스(William Tory Harris), 프란시스 파커(Francis Parker),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 등이다. 특별히 듀이는 교육을 인간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보았으며, 그의 철학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통해서 급진적 사회 개혁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재건주의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실용적이며 듀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¹⁰⁾ 재건주의자들은 과학적 방법, 문제 해결,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주의와 같은 것들을 조장한다. 교육이 사람들을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적응시키는 한 방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미래에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건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이것이 교육이 취해야 할 일차적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건주

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일차적 역할은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IV.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이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동시에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회변화의 수단적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위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위기의 근저에 놓여있는 시대정신을 분별하고 모든 다양한 위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포괄적 지향점을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 분별을 위한 교육

교육이 사회변화의 수단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제 문제의 뿌리에 놓여 있는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¹¹⁾ 고 가르친 내용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10) Gerald L. Gutek,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 on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7.

11) 롬 12:2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자. 시장경제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외견상 착한 얼굴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재물과 자신을 사랑하는 맘몬주의의 기본적 동인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동인은 서구적 삶의 방식 추구 - 가능하면 많은 것을 수집해서 소비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구적 삶의 방식을 개인적인 삶의 가치로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가치는 다시금 시장에 대한 신뢰, 경제적 번영 추구, 물질적 풍요, 사생활화, 사회 모든 기구의 상업화, 가능한 한 최대한 경쟁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다시금 구조적 빈곤, 시장 모형에 의해 형성된 사회관계,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하며 억압적인 사회,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소명 수행을 위한 자유가 없는 사회구조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대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소명을 충족시킴으로 얻는 열매가 없이 끝없이 요구하는 탐욕스런 생활을 하도록 인도한다. 이와 같은 모든 동기와 행위의 사회문화적 결과는 결국 기근, 빈곤, 불평등, 무관심, 폭력과 질병의 증대, 분주함, 불만족, 권태 등 비인간화 현상이다.¹²⁾

이와 같은 위기 현상에 직면하여 교육이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분별하고 기본적인 동인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12) B.J. van der Walt, *Religion and Society*, Potchefstroom: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99, p. 80.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 하는 기본적 동인은 봉사, 나눔, 배움, 돌봄, 생산, 그리고 삶을 부요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과 이웃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향해 책임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적 삶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개인적 가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의, 청지기적 의식, 존중 등과 같이 사회 전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인도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다시금 가정, 학교, 대학, 기업 등과 같은 구조적 다양성을 찬양하며, 억압과 강요가 없이 인간의 다양한 소명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를 창출한다. 그래서 인간은 다면적인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자유를 성취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필요와 요구를 향유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의 복지(살림)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

2. 공의를 위한 교육

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공의를 구현하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의 또는 정의의 문제는 고대 플라톤(Plato)으로부터 현대의 롤스(John Rawls)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의 또는 정의의 문제를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추상화시키거나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의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인간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월터스토포(Nicholas Wolterstorff)에 의하면 공의는 인간이 반드시 향유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이다.¹³⁾ 생계권은 그것이 없다면 모든 다른 권리가 의미가 없어지며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월터스토포프가 공의의 문제를 논하면서 고와와 과부, 나그네와 병든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공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평화(shalom)를 위한 교육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은 궁극적으로 평화(shalom)를 위한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치관의 부재, 자원의 고갈, 공해 문제, 지구 온난화, 빈부 격차, 사회 계층간의 갈등 심화, 테러위협 증대, 지역주의화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문제들은 결국 평화(shalom)를 위한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평화는 단순히 평안함을 누리는 감정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이웃,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터스토포프에 의하면 평화는 이와 같은 제반 관계에서 누리는 교제와 즐거움이다. 평화는 단지 적의가 없는 상태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평화는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enjoyment)이다. 한 국가는 주변 다른 국가와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가난으로 비참할 수 있다. 평화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물리적 환경속에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그 동료와 함께 거하는 것을 즐

기는 것이며 자신과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¹⁴⁾

그래서 월터스토포프는 평화의 개념을 책임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평화가 있는 곳에 우리는 서로 서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연에 대해 책임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그것 이상을 의미한다. 관계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만 평화는 완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물론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기쁨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남을 수 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상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가 개입되어진다.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생존의 곤경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교육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4중 관계에서 평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맺음에서 교제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 존재'(religious being)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특정한 신의 존재를 상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초월적 존재 또는 절대적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월터스토포프에 의하면 진정한 평화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와 그를 섬기는데서 오는 기쁨이

13)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pp. 81-85.

14) *Ibid.*, p. 70.

포함된다. 선지자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의 길로 돌아서지 않을 날을 의미한다.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가치관 교육 또는 종교교육은 교육이 진정한 형태의 사회적 책무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이웃과의 관계 맺음에서 교제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이다.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고 유아독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즐기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월터스토폴프에 의하면, 평화에는 다른 인간들과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이 포함된다. 각 개인이 세상에서 자신의 길만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일 때 평화는 없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압제하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때” 바로 그 때에야 “의의 공효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이 진실이 된다. 그래서 월터스토폴프는 가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부유한 자가 기아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도울 힘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그 어려운 자를 공격한 것만큼이나 그 주린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그러므로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우관계를 원만히 맺어나가고, 이러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5) *Ibid.*, p. 82.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관계 맺음에서 교제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은 또한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월터스토폴프에 의하면 평화에는 자연과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와 물리적 환경속에 거하는 기쁨이 포함된다.¹⁶⁾ 평화는 우리가 우리의 노동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데서 성취감을 발견하고 그 결과에 기쁨을 발견할 때 온다. 행복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도 피적이거나 고행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며 보다 숭고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하지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곤충 하나, 동물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갖는 오묘한 특성과 생활양태를 즐기면 살아가는 삶은 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될 것이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아동 및 청소년은 건강하다.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환경교육 또는 생태교육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넷째,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자신과의 관계 맺음에서 교제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은 특별히 자신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무생물이나 다른 동식물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성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지식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자

16) *Ibid.*, pp. 70-71.

신을 지식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건강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며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설정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의식(positive self-esteem)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V. 맺는 말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에 올바른 방향으로 공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회문화 현상의 근저에 깔려있는 종교적 동인과 세계관을 분별하는 일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럴때에 교육은 사회적 책무성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문화명령을 많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단지 문화 명령만을 언급하는 것은 학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원리도 제시해 주지 못하며 기독교교육과 학문활동을 실천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학자와 교육자들이 우리의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결여하게 되는 구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는 보다 더 책임성 있게 우리의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명령만으로는 학문을 행하기 위한 근거로 불충분하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교

육은 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지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진작시키는 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참고도서

- 김성수, 김승욱, "200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초대의 글", 기독교학문 연구소, 2007.
- Edlin, Richard J.,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 분과,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그리심, 2004.)
- Guttek, Gerald L.,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 on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7.
- Os Guinness, *The Gravedigger File*, 이종필 옮김, 「무덤파기 작전」, 서울: 낮은 울타리, 997.
- Plato, *The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 Skinner, B. F., *Walden Two*, New York: Macmillian, 1948.
- Skinner, B. F.,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Alfred H. Knopf, 1971.
- Van der Walt, *Religion and Society*, Potchefstroom: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99, p. 80.
- Van Dyk, John,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3.
-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